

96년 독과점사업자 326사 지정

에틸렌 · 톨루엔 · 가성소다 등 127개 품목 ... PS · 샴푸 등 22개는 제외

96년부터 에틸렌 · 톨루엔 · 가성소다 등 12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됐다.

또 기존 독과점품목의 독과점사업자로 3개가 새로 추가돼 독과점사업자 수는 95년 316개(138개 품목)에서 326개(140개 품목)로 10개 늘어나게 됐다.

1996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화학부문)

일련번호	품 목	사업자
36	질 소	한국산업가스 대성산소 유니온가스
37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한화종합화학
38	탄산나트륨	동양화학
39	에틸렌	유 공 LG석유화학 대림산업
40	톨루엔	유 공 호남정유 대림산업
41	요소비료	남해화학
42	복합비료	남해화학 경기화학 조 비
43	ABS	LG화학 제일모직 미원유화
44	PVC	한화종합화학 LG화학
45	PPG	한국포리올 미원유화
46	합성세제	LG화학 애경산업 제일제당
47	치 약	LG화학 태평양
48	화약류	한 화
49	녹화테이프	SKC 새한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94년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96년도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를 고시하고 9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독과점사업자는 품목별 연간 국내시장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자중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단 10%미만 기업은 제외)에 지정되고 이들 사업자들은 가격납용, 신규 진입 방해, 출고조절등 부당행위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독과점품목중 크라프트지 · 중유 · 복합비료 · 증기발생보일러 · 컴퓨터용수상기 · 카라디오등 6개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해 지정됐다.

또 질소 · 톨루엔 · PET필름 · 플라스틱새시바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등 17개 품목은 매출액 증가때문에 지정됐다.

독과점 품목에서 탈락한 브라운관용유리 · 표면처리강판 · 차량공기조절기등 3개 품목은 매출액 감소로, 햄 · 합성섬유방직사 · 캐주얼화 · 폴리스티렌 · 화장비누 · 샴푸 · 폴리아미드섬유 · 규소망간철 · 중후판 · 정련동 · 축전지 · 컬러TV브라운관등 19개 품목은 점유율 감소로 각각 탈락했다.

한편, 96년도 독과점품목의 94년도 매출액은 82조9000억원으로 95년도 독과점품목의 93년 매출액 69조9000억원보다 크게 늘었으나 이들 매출액에서 30대 재벌기업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3.2%에서 41.6%로 오히려

낮아져 시장집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남게 된 117개 품목중 31개 품목은 독과점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반면 65개 품목은 낮아졌고, 신규로 지정된 23개 품목중 매출액 증가로 인한 것이 17개이고 나머지 7개는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는 수입개방의 확대, 신규사업자 진입등으로 우리나라 공산품의 시장구조가 점차 경쟁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